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종교류(200)의 재전개 방안

Adaptation and Expansion of the Class Religion(200) of DDC for Korean Libraries

오동근 (Dong-Geun Oh)* · 여지숙 (Ji-Suk Yeo)**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종교류의 재전개 |
| II. DDC 종교류에 나타나는 임의규정의 분석 | 1. 한국도서관의 DDC 종교류 재전개의 현황과 문제점 |
| 1. 다양한 변형방식의 도입(초판 - 제16판) | 2. DDC 종교류(200)의 새로운 재전개 방안 |
| 2. 임의규정의 본격적인 도입(제17판) | IV. 결 론 |
| 3. 임의규정의 형식과 내용상의 변화(제18판 - 제21판) | |
| 4. DDC 종교류 임의규정 적용상의 문제점 | |

초 록

이 연구는 DDC를 사용하는 한국도서관에서 종교류를 재전개하기 위한 시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DDC의 종교류에 마련된 임의규정의 발전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DDC 종교류의 임의규정은 단일종교가 그 나라에서 대표성을 갖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한국과 같이 다수의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재전개안의 특징은 DDC의 기본적인 체계와 배열순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불교와 동양의 종교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를 위해 DDC 원안의 220-280의 7개 강에 전개된 기독교를 220 하나의 유로 축소하였고, 230부터 270에는 불교를 비롯한 그 밖의 종교를 배정하여, 여러 종교간의 균형을 유지하였고, 특히 동양3국의 주요종교를 상위에 배치시켰다. 아울러 이 안에서는 불교와 동양종교, 한국종교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에 대비한 별법(別法)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recommend a suggestion to adapt and expand the class 200 Religion for Korean libraries using DDC. The first part of it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and general problems of the options in 200 and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somewhat undesirable to use the options in the libraries of the nations many religions are predominant, as in Korea. The second part of it recommends a suggestion. The major characteristic of it is that it not only follows the basic systems and order of the DDC but also suggests the plan that emphasizes the Buddhism and other relig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for Korean libraries. It contracts the Christianity of 220-280 in original DDC into only one division 220, and rearranges the divisions 230-270 for the Buddhism and other religions of the world so that various religions can be included in the divisions. And it also suggests an alternative for the libraries that want to emphasize the Buddhism and other religions of East-Asian and Korean origin.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I. 서 론

DDC는 초판 발행 이후 120년 이상의 시간 동안 21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분류표가 되었다. 이 분류표가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장점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DDC에는 자체의 단점 또한 적지 않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이 분류표가 기독교와 앵글로색슨 문화권에 편향되어 있어, 그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DDC의 종교류(200)는 10개의 강 중에서 220-280까지 7개를 기독교에 배정하여, 기독교 중심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비판에 따라, DDC의 종교류에서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강조하고자 할 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 종교에 우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임의규정은 모두 하나의 종교만이 중요시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의 국교(國敎)가 있거나 국민의 대다수가 한 종류의 종교만을 가진 국가, 따라서 한 종교의 자료가 도서관 장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아주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다수의 종교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는 이 임의규정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DDC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DDC 종교류를 원안대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임의규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DDC 종교류를 재전개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한 나라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한 국가 안에서 여러 종교가 혼재해 있는 국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 나라의 모든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DDC 종교류의 재전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국의 도서관에서 DDC 종교류(200)를 공통적으로 재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선 DDC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종교류의 임의규정의 역사와 특성,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능한 한 DDC의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한국의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교류의 새로운 재전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DDC 종교류에 나타나는 임의규정의 분석

DDC의 종교류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에서 이를 재전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임의규정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장에서는 종교류에 나타나는 임의규정의 도입과정과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이를 한국의 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¹⁾

1. 다양한 변형방식의 도입(초판 ~ 제16판)

주지하는 바와 같이, Dewey는 저자의 지시 없이 분류표를 변경시키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자의 허락 없이는 분류표를 변경하거나 하위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 이런 의미에서, 개개 도서관이 자관(自館)의 실정에 맞게 분류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류표의 지시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문자의 도입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DDC의 초판에서 Dewey는 아라비아 숫자는 다른 어떤 기호보다도 쓰기 쉽고, 더 빨리 식별되며, 혼란이나 실수를 범할 우려가 적기 때문에, 분류표에서 로마자나 알파벳의 대·소 문자와 다른 기호의 사용을 포기하고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³⁾ 그런데 DDC에는 예외적으로,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문자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제2판에서부터 도입되었는데, ①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한 문자 및 심벌기호법(Letter or simbol⁴⁾ notations for changes or additions), ② 전문가를 위한 축약(Contractions for specialists), ③ 최종적인 세구분을 위한 알파벳 및 연대순의 사용(Use of

1) 한편 DDC 제21판의 임의규정 전반에 대해서는 오동근, 여지숙,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 임의규정의 적용방안. 도서관학논집 제29집(1998). pp.313-342.를 참조하기 바란다. 종교류의 임의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도서관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불교를 예로 들어 임의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논문은 그 후속연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for arranging cataloging and indexing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and for pamphlets, clippings, notes, scrap books, index rerums, etc.* Boston: Library Bureau, 1885, p. 50.

3) Mevil Dewey,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 Amherst: Mass, 1876. p. 8.

4) simbol, chanjes, addition, alfabet, cronolojy는 Dewey가 주장한 철자간략화에 따른 단어로, 현재의 symbol, changes, addition, alphabet, chronology에 해당한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 2호)

alfabet or cronolojy for final subdivisions), ④ 파순(破順: Broken order), ⑤ 주제에 대한 찬반 구분(Pro and con division of topics) 등이 그 예이다.

- (1)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한 문자 및 심별기호법 : 이 방법은 어떤 분류번호 아래에 하위구분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새로운 표제를 원할 경우 문자나 심별을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51.34 Icebergs 다음에 새로운 표제를 원한다면, 554.34a로 표시하고 원하는 곳에 배열한다.
- (2) 전문가를 위한 축약 : 이 방법은 적은 장서를 가진 전문가의 경우 긴 분류번호 대신에 단축된 번호를 사용하여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3) 최종적인 세구분을 위한 알파벳 및 연대순의 사용 : 이 방법은 주(州: states) 안에 있는 도시, 피전기자의 이름, 한 번호 아래에 있는 새나 곤충 등과 같이 알파벳순이나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 사용한다. 이 경우 본표에 있는 모든 하위구분을 사선으로 지우고, 그리고 나서 가장자리에 'Alfabet by elements'로 표시하게 되는 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46.3 Metals	Alfabet by elements
.31 Alkali group	
.32 Potassium	
.33 Sodium	
.34 Lithium	
.35 Rubidium	
.36 Caesium	

그리고 나서, 색인에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표목들을 모두 찾아내어 546.3 이후의 모든 기호를 삭제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Potassium, inorganic chemistry, 546.3~~1~~
 Rebidium, inorganic chemistry 546.3~~5~~

- (4) 파순 : 이 방법은 공공도서관에서 소설류를 대출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는 것과 같이, 각 도서관이 필요에 따라 서가배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번호를 변경하거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각 언어에 대해서 문학과 언어를 함께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즉, 420을 820 바로 앞의 서가에 배열하고 430을 830 바로 앞 서가에 배열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5) 주제를 위한 찬반구분 : 이 방법은 찬반이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과 같이, 아주 두드러진 주제를 뚜렷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분류번호에 어떤 부호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옹호자와 반대자에 대해서는 +, -기호나 pro의 약자인 p와 con의 약자인 c를 써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324.3, 324.3c, 324.3p와 같은 분류번호가 만들어지게 된다.

200 종교류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을 제4판부터 도입한 바 있다. 이상의 5가지 변형방법 가운데 제4판에 적용된 방법은 (1)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한 문자 및 심벌기호법이다. 예컨대 267.3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s) 아래에는 더 짧은 번호를 주기 위해서 'X'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X는 Y.M.C.A를 의미하는 267.3이라는 번호 대신에 사용해서 더 짧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소도시에서 Y.M.C.A의 사업은 267.319이다. 그러나 문자 X를 이용하면 X19가 된다.

267 Associations

.3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s

To shorten the number, X may be used for 267.3 throughout

.31 Objects, field and extension

.319 Work in small town

이 방법은 267.432 여성기독교단체(Women's Christian associations)와 267.5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s)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즉 267.432에서는 문자 'W'가, 267.5에서는 문자 'Y'가 267.432와 267.5대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200 종교류에서는 제14판까지 계속되다가 제15판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DDC의 종교류는 제2판부터 분류자에게 본표에서 주어지지 않은 표제의 추가나 또는 하위구분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제16판 이전까지는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즉, 개개의 도서관이 자관에 맞게 분류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분류표에서 지시하지 않은 것은 변경시킬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변형을 위한 제안으로 앞서 살펴본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16판부터는 이상의 5가지 변형방법 중 (3) 최종적인 세 구분을 위한 알파벳 및 연대순의 사용 방법을 새로이 도입하게 된다. 즉 221 구약성서의 221.92 전기에서 피전기자의 이름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과 289.9 기타 종교의 종파를 알파벳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변형방법이 제안된 것이다.

221 Old Testament

.92 biography

Arrange alphabetically by name of biographee, using A1 for collective biography

289 Other Christian sects

.9 Sects not otherwise provided for+-

Arrange alphabetically by denomination or sect

이와 같이 제16판까지는 각 도서관에서 분류표를 변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notes)의 형식으로 변형(variations)의 방법으로써 제시하였다.

2. 임의규정의 본격적인 도입(제17판)

제17판은 DDC가 프로테스탄트 앵글로색슨 문화에 편중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판이다.⁵⁾ 그 한 방법으로 미국과 관련된 특징(언어류의 420-490, 종교류의 220-280)을 줄이지 않고 다른 문화의 특징을 분류하고자 하는 분류자를 위한 장치로 임의규정(options)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제17판에서는 이전판의 변형방법을 바탕으로 임의규정이 형식적으로 완성되었다. 즉 제17판부터는 다른 주기와 구별되는 하나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임의규정은 두 곳에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편자가 우선적으로 선택한 기호 아래에 주기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 형식은 “If preferred [i.e. if you prefer], class [this subject at another location]”이다. 다른 하나는 편자가 임의규정이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곳에 다음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Optional: prefer [the location preferred by the editors])”. 제17판에는 총54개의 이러한 임의규정들이 제시되었다.

제17판의 종교류(200)에 나타나는 임의규정들은 크게 ① 외경서(外經書)나 위경서(僞經書)를 구약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 ② 기독교의 각 종파의 교리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③ 기독교의 각 종파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④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외경서나 위경서를 구약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

DDC의 본표에서는 외경서나 위경서를 229에 배정하였으나, 222-224에 있는 임의규정은 외경서나 위경서에 있는 내용을 구약성서에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5)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New York: Forest Press, 1965. p. 55.

222 Historical books

.86 Tobit (Tobias)

(Optional; prefer 229.2)

229 Apocrypha, pseudepigrapha, deuterocanonical works

.2 Tobit (Tobias)

If preferred, class in 222.86

2) 기독교의 각 종파의 교리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기독교에는 많은 종파와 교파가 있는데, 제17권의 230.1-.9에 있는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기독교의 구체적인 종파의 교리를 일반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배정되어 있는 231-236보다 앞선 번호인 230.1-.9에 강조하려는 교파의 교리를 분류할 수 있다.

230.1-.9 Doctrines of specific denominations and sects

(Optional; specific doctrines of specific denominations and sects; prefer 231-236)

3) 기독교의 각 종파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DDC의 280은 기독교의 종파(Denominations and sects)를 다룬다. 그리고 281-287까지는 각 종파들, 초기교회와 동방교회, 로마카톨릭교회, 영국교회, 개신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를 다루고, 289는 기타 종파를 다룬다. 289.2에는 281~287에서 제공되지 않은 종파를 분류할 수 있는 주기가 있다. 이 주기는 제17판에서는 자국우위를 위한 주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제19판부터 임의규정의 형식을 취하여 제20판부터는 임의규정으로써 완전한 형태를 취하게 되어 제21판까지 계속되고 있다.

289 Other denominations and sects

.2 [Permanently unassigned]

If it is desired to give local emphasis and a shorter number to a specific denomination or sect not separately provided for, class it here

.9 Others

If desired, class a specific denomination or sect requiring local emphasis in 289.2

4)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제17판은 DDC의 가장 큰 단점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프로테스탄트 앵글로색슨 문화의 편중을 줄이기 시작한 판이라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292-299에 대한 중앙엔트리(centered entry)에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강조할 수 있는 주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주기 역시 앞선 기독교의 다른 교파를 강조하기 위한 주기처럼, 제17판에서는 자국우위를 위한 주기로써 제공되었지만 제19판부터 임의규정의 형식을 취하여 제20판부터는 임의규정으로써 완전한 형태를 취하게 되어 제21판까지 계속되고 있다. 제20판부터 이 주기는 임의규정 A에서 E까지 5개로 제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 292-299 Specific religions

Divide as below, but, if it is desired to give local emphasis and a shorter number to a specific religion, place it first by use of a letter or other symbol, e.g., Hinduism 2H0 (preceding 220), or 29H (preceding 292)....

그리고 298에는 강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종교에 대해서 자국우위나 더 짧은 번호를 주기 위한 주기가 새로이 마련되었다. 이 주기는 제20판에서 292-299에 대한 중앙엔트리에 나타나는 5개의 임의규정 중 임의규정 D로 나타나게 된다.

298 [Permanently unassigned]

If it is desired to give local emphasis and a shorter number to a specific religion, class it here.

제17판은 현재 제21판까지 개정된 DDC가 제16판까지 기존에 제시해 온 변형방법들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규정을 내용과 형식면에서 확립한 판으로 볼 수 있다.

3. 임의규정의 형식과 내용상의 변화(제18판 ~ 제21판)

제18판과 제19판에서 임의규정은 형식상으로 보면 제17판의 임의규정과 큰 차이는 없다. 제18판에서 임의규정이 나타나는 형식은 “If preferred [i. e. if you prefer], class [this subject at another location]”과 “(It is optional to class here...)”, “(Use of this number is optional; prefer...)”, “(If it is desired to give..)”의 형식이 있다. 제19판에서는 이외에도 “(Optional number: prefer...)”의 형식이 있다. 그리고 다수의 임의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A, B, C등으로

나열된 형식이 추가되었다. 제20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던 임의규정의 기술 방식이 "(Option: ...)"과 "(Optional number: ...)"로 기술되었다. 이 형식은 제21판에서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다. 제20판과 제21판에서 임의규정은 이전판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용자들이 명확하게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임의규정의 기술형식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제18판 이후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종교류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7판에 비해 제18판은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강조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더 상세하고 다양해 졌다. 200, 210, 220, 중앙엔트리인 ▶230-280, 291, ▶292-299, 298, 299에 있는 임의규정이 모두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이다. 200 아래에 있는 임의규정은 A, B, C, D 네 가지의 방법으로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A는 230에서 280에 강조하려는 종교를 분류할 것을 지시한다. B는 210이나 291에 강조하려는 종교를 분류할 것을 지시한다. C는 298에 그 종교를 분류할 것을 지시하고, D는 문자나 부호를 사용해서 220, 291, 292의 앞에 그 종교를 위치시킬 것을 지시한다. 이외의 번호 210, 220, ▶230-280, 291, ▶292-299, 298, 299에 있는 임의규정들은 200에서 제시된 4가지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임의규정이다. 제17판의 임의규정은 제18판에서는 임의규정 D로 포함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 Religion

The following options give preferred treatment to, or make available more and shorter numbers for the classification of, any specific religion that it is desired to emphasize. Full instructions appear under each number

- A. Class in 230-280, with scriptures in 220
- B. Class in 210 or 291
- C. Class in 298, which is permanently unassigned
- D. Give preferred treatment by placing before 220, 291 or 292 through use of a letter or other symbol. Full instructions appear under 292-299

제17판에 비해 제18판에서 새로 나타난 임의규정으로는 221.92 구약에서의 인물을 922 종교지도자, 사상가, 연구가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221.922 인물집과 221.924 개인전기에서 하위구분 없이 92 또는 920에 전기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221.924에는 성별로 전기를 구분해서 남자는 920.71에 여자는 920.72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 추가되었다.

221 Old Testament

.92 Persons

If preferred, class biography in 922

.922 Collected

If preferred, class biography in 92, or in 920 without subdivision

.924 Individual

If preferred, class individual biography in 92, or B; or , if preferred, class individual biography of men in 920.71, of women in 920.72

920 General biography, genealogy, insignia

▶920.1-920.9 Biography of specific classes of persons

(Use of subdivisions identified by * is optional; prefer specific discipline or subject, using "Standard subdivisions" notation 092 from Table 1)

.7 Collected biography of persons by sex

(It is optional to class here all individual biography; prefer specific discipline or subject usubg "Standard subdivisions" notation 0924 from Table 1)

[922] *Religious leaders, thinkers, workers

*Use is optional; prefer treatment described under 920.1-928.9

제19판에서는 종교류(200)의 임의규정은 어떤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0판에서는 기독교의 각 종파와 교파를 강조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서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루터파 교회, 침례교회, 조합교회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이 임의규정의 번호는 284.14-19, 285.84-89, 286.14-19로, 각 종파가 세분되는 번호 중 제일 처음의 번호 앞에 임의적인 번호인 284.12, 285.82, 286.12에 미국 이외의 국가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284 Protestant denominations of Continental origin and related bodies

(.12) (Permanently Unassigned)

(Optional number used to provide local emphasis or a shorter number for Lutheran church in a specific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prefer 284.14-284.19)

.14-.49 Treatment by continent, country, locality

(Option: Class Lutheran churches in a specific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in 284.12)

제20판이 제19판과 다른 또 하나는 제18판과 제19판에서 200에 있던 임의규정이 중앙엔트리인 > 292-299에 5개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임의규정은 제18판 및 제19판과 내용면에서는 다른 점이 없다. 단지 200, 210, 291, 중앙엔트리인 292-299에 흩어져 있던 임의규정을 > 292-299에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임의규정 A는 제18, 19, 20판이 동일하며, 임의규정 B는 제18, 19판에서 210과 291에 있던 임의규정이 제20판에서 임의규정 B와 C로 나뉘어진 것이다. 제20판의 임의규정 D는 제18, 19판에서 200에 있는 임의규정 C와 같고, 제20판의 임의규정 E는 제18, 19판의 임의규정 D와 같다. 제20판의 이 임의규정은 제21판에도 변경 없이 적용되고 있다.

제21판의 > 292-299에 있는 임의규정을 보면, 임의규정 A는 230-280에 강조할 종교를 두고, 220에 그 종교의 경전을, 200에 포괄적인 저작을 분류하도록 하고,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는 298에 분류하도록 한다. 임의규정 A는 220, 230-280에 있는 임의규정에서 다시 설명된다. 임의규정 B는 210에 그 종교를 분류하게 한다. 임의규정 B는 210에 있는 임의규정에서 다시 설명된다. 임의규정 C는 291에 강조할 종교를 분류하도록 한다. 임의규정 C는 291에 있는 임의규정에서 다시 설명된다. 임의규정 D는 298에 구체적인 종교를 분류하도록 한다. 임의규정 C는 291에서 다시 설명된다. 임의규정 E는 문자나 부호를 사용해서 구체적인 종교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한다.

> 292-299 Religions other than Christianity

(Option: To give preferred treatment or shorter numbers to a specific religion, use one of the following;

(Option A: Class the religion in 230-280, its sources in 220, comprehensive works in 200; in that case class the Bible and Christianity in 298

(Option B: Class in 210, and add to base number 21 the numbers following the base number for the religion in 292-299, e. g., Hinduism 210, Mahabharata 219.23; in that case class philosophy and theory of religion in 200, its subdivisions 211-218 in 201-208, standard subdivisions of religion in 200.01-200.09

(Option C: Class in 291, and add to base number 291 the numbers following the base number for that religion in 292-299, e. g., Hinduism 291, Mahabharata 291.923; in that case comparative religion in 290 and its subdivisions 291.04 in 290.04, its subdivisions 291.1-291.9 in 290.01-290.09)

(Option D: Class in 298, which is permanently unassigned)

(Option E: Place first by use of a letter or other symbol, e. g., Hinduism 2H0 (preceding 220), or 29H (preceding 291 or 292); add to the base number thus

derived, e. g., to 2H or to 29H, the numbers following the base number for the religion in 292-299, e. g., Shivaism 2H5.13 or 29H.513)

이상의 임의규정을 표로 나타내면 <표 2-1>과 같다.

<표 2-1>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주 제	Preferred	Options				
		A	B	C	D	E
Religions other than Christianity	292-299	230-280	210	291	298	29L

제20판에 비해 제21판이 달라진 점은 성서를 분류할 때 유대교 성경에서 나타나는 순서대로 구약성서를 분류할 수 있게 하는 임의규정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 임의규정이 나타나는 번호는 221과 296.11이다. 221에는 성경을 유대교 성경에서 발견된 순서대로 배열하기 위해서 2개의 임의규정이 제시된다. Option A는 DDC 4권에 있는 매뉴얼에 222-224의 임의적인 번호를 이용해서 성경을 분류하도록 했고, Option B는 296.11에 있는 임의규정을 이용해서 성경을 배열하도록 한다. 296.11에 있는 임의규정에서는 DDC 4권에 있는 매뉴얼에 유대교성경에서 발견되는 순서로 구약성서 번호를 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표 2-2>와 같다. 이때 이 번호들은 296.11의 번호를 세 구분하여 배정한다.

221 Old Testament (Tanakh)

(Option: To arrange the books of the Old Testament(Tanakh) as found in Jewish Bibles, use one of the following:

(Option A: Use the optional arrangement of 222-224 given in the Manual at 221)

(Option B: Class in 296.11)

(296.11) Tanakh

Arranged as found in Jewish Bibles

<표 2-2> 구약성서를 위한 임의적인 번호

Book	Preferred	Option A	Option B
Amos	223.8	223.63	296.1143
Canticle of Canticles	223.9	224.41	296.11641
.	.	.	.
.	.	.	.
Zephaniah	224.96	223.71	296.1151

4. DDC 종교류 임의규정 적용상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DDC에서 본표에서 제공하지 않는 측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표를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2판부터 5가지의 방법으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제16판까지는 DDC의 가장 큰 단점인 기독교와 앵글로색슨문화권에 대한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 변형방법이 포괄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17판부터 그러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했고, 그 방법의 하나로 임의규정이 나타난 것이다. 즉 임의규정은 제17판에 처음 나타나 현재 제21판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종교류에서 기독교 편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타 종교를 강조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제17판부터 제공되었는데, 제17판에서는 중앙엔트리인 292-299에서 문자나 다른 심벌을 이용한 방법을 채용했다. 이 임의규정은 제18판 및 제19판에 4개의 임의규정이 제공되었고, 제21판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임의규정을 중앙엔트리인 292-299에 5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타 종교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만으로 DDC의 기독교 편중이라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임의규정은 모두 하나의 종교만이 중요시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들이다. 따라서 국교(國敎)가 있거나 국민의 대다수가 한 종류의 종교만을 가진 국가, 따라서 한 종교의 자료가 도서관 장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의 경우 이 임의규정을 채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다수의 종교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는 이 임의규정을 채용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DDC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DDC 종교류를 원안대로 그대로 사용하거나 임의규정을 적용하여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DDC 종교류를 재전개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한 나라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DDC가 세계 각국에서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 국가 안에서 여러 종교가 혼재해 있는 국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 나라의 모든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DDC 종교류의 재전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된다.

Ⅲ.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종교류의 재전개

이 장에서는 DDC 종교류(200)를 한국의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DDC 종교류의 임의규정을 활용한 재전개 방식은 여러 종교에 관한 문헌을 다루는 한국의 도서관 상황에는 그리 적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많은 도서관에서는 나름대로의 재전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바, 이 장에서는 그와 같은 재전개 방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한국도서관의 DDC 종교류 재전개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에서 최초로 DDC를 사용한 도서관은 경성의국인학교 도서관과 연희전문학교 도서관으로, DDC에 의하여 도서를 분류하였다는 최초의 기록은 1931년 8월에 발행된 Chosen Christian College Bulletin(연희전문학교 영문요람)의 창간호에 실린 것이다.⁶⁾ 이로 미루어 보면, DDC는 70여년 동안이나 우리 나라에서 사용된 분류표가 된다. 우리의 표준분류표인 KDC가 나온 이후에도 특히 대학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많은 도서관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DDC의 기독교와 앵글로색슨 문화권에 대한 편중 때문에, 많은 도서관에서는 각 도서관별로 이를 변경하여 고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고쳐 쓰기 방식을 채택한 예로는 연희전문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연대미상),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1955)⁷⁾, 국회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1959)⁸⁾, 이재철의 전개 및 고쳐 쓰기(1966)⁹⁾,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1969)¹⁰⁾ 등이 알려져 있다.

연희전문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는 미흡한 동양항목에 대해 세분전개해 쓴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나 동양에 우위권을 주기 위하여 고쳐 쓴 항목은 없었다.¹¹⁾ 연세대학교

6) 이재철,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상): 그의 역사와 전개 및 고쳐쓰기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4권 7호(1967.7) p. 6.

7) 김중환 역편, 『듀이십진분류법(축소 제7판)』. 서울: 국립도서관, 1955.

8) 국회도서관 편, 『듀이十進分類表: 主類表, 主綱表, 主目表』. 서울: 국회도서관, 1959.

9) 이재철, 『한국도서관을 위한 듀이십진분류법(제17판)의 전개 및 고쳐쓰기표』. 미고정판(상),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66.

10) 천혜봉, 박영준 공편, 『동서용 D.D.C.(16판) 전개표=Expansion of D.D.C. (16th ed) for Oriental Materials』. 서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969.

11) 이재철, op. cit., p.14.

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는 모두 DDC 제16판을 기초로 하여 DDC로 분류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이 중 연세대 도서관의 것은 박봉석의 KDCP의 방식, 국회도서관의 것은 NDC의 방식에 기초를 두고 재전개한 것이다.¹²⁾ 그러나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것은 특정의 어느 한 분류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KDC와 NDC는 물론 그 밖의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고 주제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DDC의 체계에 가급적 맞추어 이들을 집약하여 재전개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재철의 전개 및 고쳐 쓰기는 DDC 제17판을 기초로 한 것으로, DDC 체계를 살려 조기성을 떨 수 있는 항목의 전개는 DDC 원표의 체계를 따르려고 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국도서관협회의 KDC를 세목전개에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³⁾

이러한 재전개 방식들은 종교류(200)의 고쳐 쓰기에서는 일부의 분류기호만을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294대에 있던 불교를 291로 고쳐 전개하였다. 국회도서관의 경우에는 불교를 294에 두었다. 한편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경우에는 불교를 210에 두고, 기독교를 원판과 마찬가지로 220부터 280까지 배정하고, 290에 기타 제종교를 두고, 291에 한국의 제종교를 두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의 시도가 있는 후, DDC 종교류 전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변우열¹⁴⁾과 이교숙¹⁵⁾ 김연경¹⁶⁾, 문병석¹⁷⁾, 최윤숙¹⁸⁾, 이세원¹⁹⁾ 등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변우열은 DDC와 LCC, CC의 종교류를 비교분석하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종교만을 위한 새로운 분류표를 제안한 바 있다. 변우열은 종교를 위한 분류표를 편성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분류기호의 특성 즉, 간략성, 단순성, 조기성, 신축성, 국제적 통용성, 순서의 명확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
- 12) 이재철,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중): 그의 역사와 전개 및 고쳐쓰기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4권 8호(1967. 8), pp.18-21.
 13) 이재철,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하): 그의 역사와 전개 및 고쳐쓰기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4권 9호(1967. 9), p. 24.
 14) 변우열, 『종교류 문헌분류 전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석사), 1992.
 15) 이교숙, "DDC 윤리신학 분야의 분류기호 수정전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톨릭신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 1991.
 16) 김연경, 『Dewey 십진분류법-21판』, 서울: 금문, 1997.
 17) 문병석 편역, 『종교 및 신학문헌 분류표: DDC 20』 - 서울: 영문, 1992.
 18) 최윤숙, "우리나라 도서관의 DDC동양부문 전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공(석사학위논문) 1974.11.
 19) 이세원, "DDC에 있어서 동양관계항목의 발전 및 고쳐쓰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4.12.

- ② 기존의 분류표는 한정된 분류항목으로 세계의 모든 종교의 제분과를 수용하지 못해 특정 종교의 경우 분류기호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구분의 기호체계로 편성해서 전개할 수 있는 분류항목의 수를 늘렸다.
- ③ 기존의 분류표는 종교류의 전개에 있어서 종교학의 제분과를 일부만 수용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세기 후반에 성립되어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종교학의 제분야를 모두 수용하였다.
- ④ 기존 분류표는 종교의 전개에서 종교분류의 원칙을 무시하고 미국중심, 서구중심, CC의 경우는 인도중심으로 전개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대등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종교의 일반 분류원칙인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전개하였다.
- ⑤ 이 분류표는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교공통구분을 만들어 새로 만든 분류표에 조기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변우열이 제시한 종교공통구분의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변우열이 제시한 종교류 공통구분

분류번호	표	목
-10	Doctrines, Creeds	
-20	Founder of religion	
-30	Sacred books(Collected works)	
-40	Maxims, Sermons	
-50	Organization, Government, Ministry	
-60	Liturgy and ritual	
-70	Religious practice	
-80	Preaching, mission	
-90	Denominations, sects	

- ⑥ 국제적인 통용성을 가질 수 있게 전개하기 위해 DDC와 LCC, CC 등 어떠한 분류표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호의 배정을 두 자리수로 전개하였기 때문에 DDC의 경우 분류번호 앞에 2를 첨가하면 된다. 예를 들면 불교는 261, 기독교는 272가 된다. LCC의 경우 BL을 첨가한다. 불교는 BL61, 기독교는 BL72가 된다. CC의 경우 Q를 첨가하여 불교는 Q61, 기독교는 Q72가 된다. 그 내용중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변우열이 제시한 종교류 분류표(일부)

분류번호	표 목
51	Hinduism and other religions of India
52	Hinduism: Brahmanism
53	Saiva
54	Sakta
55	Jainism
56	Sikhism
57	Parseeism: Zoroastrianism: Mazdaism
61	Buddhism
64	Indigenous religions of the East Asia
65	Confucianism(유교)
66	Taoism(도교)
67	Shintoism(신도)
68	Caodaism(高天教)
71	Judaism
72	Christianity
76	Islam: Mohammedanism
86	New religions and modern movements
88	New religion of Asia
88.2	Korea
88.21	Chondoism(천도교)
88.22	Dankunism(단군교, 大天教)
88.23	Jeungsando(증산교)
88.24	Ilkwando(一貫道)
88.25	Songdokdo(聖德道)
88.26	Hanolkyo(한얼교)
88.3	Japan
88.5	Indonesia

이 방식은 종교류를 분류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분류표로 DDC는 물론 LCC와 CC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DDC에 적용하여 재전개하는 데는 DDC의 전체적인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김연경은 DDC 제21판을 편역하면서, 동양관련 항목에서는 국회도서관의 전개표를 참조하여 그 내용을 재전개한 바 있다. 이 안에서는 종교류의 전개에서 294.3에 있던 불교를 294로 옮기고, 294.8에는 불교의 각 종파를 두었는데 각 종파마다 공통세구분을 할 수 있는 공통세구분을 제시하였다. 이 공통세구분은 (1) 교의(教義), (2) 종조(宗祖), (3) 종전(宗典), (4) 법화(法話)·어록(語錄), (5) 사원(寺院)·승직(僧職), (6) 불회(佛會), (7) 포교(布教), (8) 각파(各派)이다. 예를 들면 선종성전(禪宗聖典)은 선종이 배정된 번호인 294.88에 공통세구분의 성전인 3이 더해져 294.883이 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DDC에서 294.4에 있던 자이나교는 294.94에, 294.5에 있던 힌두교는 294.95에, 294.6에 있던 시크교는 294.96에 두었다. 그리고 299.51에 한국 전래종교를 두고, 299.511에 천도교와 동학, 299.512에 대종교와 단군교, 299.514에 보천교(普天教), 299.519에 증산교, 299.52에 중국 전래종교, 299.53에 일본전래종교를 두도록 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3>과 같다. 아울러 종교류의 다른 유들은 DDC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 3-3> 김연경의 종교류 수정전개안

		DDC 제21판	수정전개안
불교		294.3	294
자이나교		294.4	294.94
힌두교		294.5	294.95
시크교		294.6	294.96
한국 전래종교	천도교·동학	.	299.511
	대종교·단군교	.	299.512
	보천교	.	299.514
	증산교	.	299.519
중국 전래종교		.	299.52
일본 전래종교		.	299.53

이 안은 DDC의 체계를 최대한으로 유지시키면서 동양종교를 적절히 재배치한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안은 여전히 DDC의 기독교 중심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불교는 294에 전개되고 한국전래종교는 299.51과 같이 전개되는 등 동양삼국의 주요종교가 불교와 분리된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윤숙은 DDC의 전 주제분야에 대해서 DDC와 KDC, NDC를 비교하면서, 우리 나라 각 도서관에서 사용중인 동양관계 항목의 수정전개 방식을 비교하였다. 이세원은 최윤숙의 연구와 동일하나, 여기에 동양관련 항목에 대한 전개시안을 추가하였다. 이 가운데 종교류를 보면, 우선 동양의 종교를 발상(發祥)국가별로 나누고 그 아래에서 세분하였다. 따라서 불교는 동양 3국(한국, 중국, 일본)의 발상종교가 아니므로, 원표대로 분류하였다. 종교류의 전개는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발상종교를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각국 종교의 배정순서는 KDC와 DDC, NDC의 분류순서를 참고하였다. 세부전개는 필요에 의해 DDC의 종교공통구

분(291.1-.9)과 같이 구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99.51에 한국발상 제종교, 299.52에 중국발상 제종교, 299.53에 일본발상 제종교로 수정 전개하였다. 이세원의 수정전개안 역시 DDC의 체계적인 순서를 가능한 한 따르면서, 동양3국의 종교를 적절히 재전개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DDC의 기독교 편중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교숙과 문병석의 안은 기독교 자체의 분류항목에 관한 내용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종교류의 재전개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2. DDC 종교류(200)의 새로운 재전개 방안

이상에서는 DDC 종교류를 한국에서 재전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DDC에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매커니즘으로 제시하고 있는 임의규정²⁰⁾을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DDC에 제시되어 있는 종교류의 임의규정은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차선의 방법은 DDC의 기본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독교 중심성을 극복하고, 종교류의 동양 및 한국관련 항목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재전개안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재전개안은 이상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다. 이 안에서 채택한 주요 전개 원칙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재전개안에서는 DDC 원안에서 220-280까지 7개 강(綱)을 차지하여, 기독교 중심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기독교에 관한 부분을 220 한 개의 강에 전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30부터 280까지에는 DDC 원안의 290의 목(目)에 전개된 기타 종교를 한 단계씩 격상시켰다. 다만 한국종교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불교를 230에 배정하고, 그 밖의 인도유래 종교를 240에 배정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DDC 원안의 291-293에 해당하는 비교종교학(291)과 고대종교(292), 게르만종교(293)의 재배치는 불가피하였다. 이를 위해 재전개안에서는 비교종교학은 280, 고대종교는 229.2, 게르만종교는 229.3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 ② 재전개안에서는 동양3국의 주요종교를 상위에 배치되도록 하였다. 불교는 230이라는 별도의 강에 설정하였고, 한국과 중국, 일본의 종교도 각각 “241 도교 및 중국유래종교 -- 242 천도교 및 한국유래종교 -- 243 신도 및 일본유래종교”에 배정하였다. 다만 도서관

20) 오동근, 여지숙.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 임의규정의 적용방안. 도서관학논집 29(1998). p.314.

에 따라서 불교와 동양종교, 한국종교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전개안의 분류기호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별법(別法)으로 220에는 불교, 230에는 동양유래종교, 231에는 천도교 및 한국유래종교, 232에는 도교 및 중국유래종교, 240에는 기독교를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이 안은 기본적으로 DDC의 체계를 가능한 한 원래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DDC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들의 순서는 가능한 한 그대로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즉 “종교이론(210) -- 기독교(220-280) -- 고대종교(292) -- 인도유래종교(불교(294.3), 힌두교(294.6) 등) -- 조르아스터교(295) -- 유대교(296) -- 이슬람교(297) -- 기타종교(299)”로 이어지는 배열의 일반적인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210 -- 220 -- 229 -- 230 -- 240 -- 246 -- 250 -- 260 -- 270 -- 290). 그 결과 일부 강과 목의 전개는 DDC의 290 기타 제종교의 전개와 조기성을 갖게 된다. 강의 전개의 경우 DDC 원안의 294-299와 재전개안 240-290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기성을 갖는다. 아울러 294 인도유래종교의 세구분인 294.3 불교, 294.4 자이나교(Jainism), 294.5 힌두교(Hinduism), 294.6 시크교(Sikhism)는 각각 230, 244, 245, 246에 배정되어, 역시 조기성을 갖는다.
- ④ 동양유래 종교를 배정할 때는 가능한 한 KDC의 순서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 재전개안의 “불교(230) -- 도교 및 중국유래종교(241) -- 천도교 및 한국유래종교(242) -- 신도 및 일본유래종교(243)”의 순서는 KDC의 220 -- 240 -- 250 -- 260 순서와 일치하는 것이다.
- ⑤ 재전개안에서 220에 배정된 기독교의 전개는 DDC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재전개안의 기독교의 전개는 DDC 원안의 분류기호의 두 번째 자리에 “2”를 하나 더 추가한 형식의 기호가 될 것이다.
- ⑥ 재전개안의 불교(230)와 도교 및 중국유래종교(241), 천도교 및 한국유래종교(242), 신도 및 일본유래종교의 구체적인 전개는 KDC의 관련항목의 전개를 따르도록 한다. 그 이유는 이에 관련된 DDC의 전개항목이 너무 적어 한국의 도서관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DDC 원안의 294.3에 있는 불교의 하위세구분은 30여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불교에 관한 모든 것을 분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241과 242, 243에는 기본적으로 도교와 천도교, 신도에 관한 자료가 분류되며, 중국유래종교와 한국유래종교, 일본유래종교에 관한 자료는 각각 241.9와 242.9, 243.9에 분류된다. 따라서 KDC에 따를 경우 242.9에 분류되어야 할 단군교와 대종교(KDC에서는 259)는 불가피하게 242.91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정된 재전개안의 내용을 도표로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종교류의 재전개안

새로운 재전개안		DDC 제21판	KDC 제4판	비 교
210 Philosophy and theory of religion		210		DDC원안과 동일
220 (222~228) Christianity		220~280	230	강의 단계에서 목의 단계로 축소
229 Classical and Germanic religion		292~293		
230 Buddhism		294.3	220	세목의 단계에서 강의 단계로 변경
240 Religions of Oriental origin	241 Taoism and Religions of Chinese origin	299.51	240	세목의 단계에서 강의 단계로 변경 (KDC의 순서 채용)
	242 Chondoism and Religions of Korean origin	299.519	250	세목의 단계에서 강의 단계로 변경 (KDC의 순서 채용)
	243 Shintoism and Religions of Japanese origin	299.52	260	세목의 단계에서 강의 단계로 변경 (KDC의 순서 채용)
	244 Jainism	294.4		세목의 단계에서 강의 단계로 변경
	245 Hinduism	294.5	270	세목의 단계에서 강의 단계로 변경
	246 Sikhism	294.6		세목의 단계에서 강의 단계로 변경
250 Zoroastrianism		295		목의 단계에서 강의 단계로 변경
260 Judaism		296		목의 단계에서 강의 단계로 변경
270 Islam, Babism, Bahai Faith		297	280	목의 단계에서 강의 단계로 변경
280 Comparative religion		291	210	목의 단계에서 강의 단계로 변경
290 Other religions		299	290	목의 단계에서 강의 단계로 변경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DDC 종교류의 새로운 재전개안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200 Religion

210 Philosophy & theory of Religion

220 Christianity & Ancient religion

Alternative is 240, if Buddhism be placed here.

221

222 Bible

223 Christianity Christian theology

224 Christian moral & devotional theology

225 Christian orders & local church

226 Social & ecclesiastical theology

227 History of Christianity & Christian church

228 Christian denominations & sects

229 Classical & Germanic religion

229.2 Classical (Greek & Roman) religion

229.3 Germanic religion

230 Buddhism

Alternative is 220.

240 Religions of Oriental origin

Alternative is 230, if Christianity be placed here.

241 Taoism(도교) and Religions of Chinese origin

Alternative is 242, if Chondoism etc. be placed here.

241.9 Other religions of Chinese origin

242 Chondoism(천도교) and Religions of Korean origin

Alternative is 241.

242.9 Other religions of Korean origin

242.91 Dankunism(단군교, 대종교)

242.92 Jeungsando(증산도)

242.93 Daesunjinrihoi(대순진리회)

243 Shintoism(신도) and Religions of Japanese

244 Jainism

245 Hinduism

246 Sikhism

250 Zoroastrianism

260 Judaism

270 Islam, Babism, Bahai Faith

280 Comparative religion

290 Other religions

<그림 3-1>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종교류의 새로운 재전개안(개요 및 주요부분)

이 안은 비록 DDC 임의규정의 방식에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DDC의 기본적인 체계를 준수하면서도, 한국도서관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전개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제까지 기독교 이외의 다수의 종교를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 분류표를 변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안이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V. 결 론

이 연구는 DDC를 사용하는 한국도서관에서 종교류를 재전개하기 위한 시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DDC의 기독교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교류에 마련된 임의규정의 도입 역사와 발전 과정, 한국도서관에 도입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써 새로운 재전개안을 제시하였다.

DDC 종교류에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강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임의규정은 기본적으로 단일종교가 그 나라에서 대표성을 갖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다수의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임의규정만으로는 한국도서관에서 종교류를 적절하게 분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종교류의 재전개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의 특징은 DDC의 기본적인 체계와 배열순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불교와 동양의 종교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를 위해 DDC 원안의 220-280의 7개 강(綱)에 전개된 기독교를 220 하나의 강으로 축소하였고, 230부터 270에는 불교를 비롯한 그 밖의 종교를 배정하여, 여러 종교간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특히 동양3국의 주요종교를 상위(240)에 배치시켰는데, 241 도교 및 중국유래종교, 242 천도교 및 한국유래종교, 243 신도 및 일본유래종교가 그것이다. 이러한 순서는 KDC의 배열순서를 참조한 것이다.

이 안은 또한 기본적으로 DDC의 체계를 가능한 한 원래대로 유지하기 위해, 특히 DDC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들의 순서는 가능한 한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DDC 원안의 “종교이론(210) -- 기독교(220-280) -- 고대종교(292) -- 인도유래종교(불교(294.3), 힌두교(294.6) 등) -- 조르아스터교(295) -- 유태교(296) -- 이슬람교(297) -- 기타 종교(299)”로 이어지는 배열의 일반

적인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210 - 220 - 229 - 230 - 240 - 246 - 250 - 260 - 270 - 290).

또한 재전개안에서 220에 배정된 기독교의 전개는 DDC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재전개안의 기독교의 전개는 DDC 원안의 분류기호의 두 번째 자리에 “2”를 하나 더 추가한 형식의 기호가 된다. 아울러 불교(230)와 도교 및 중국유래종교(241), 천도교 및 한국유래종교(242), 신도 및 일본유래종교의 구체적인 전개는 KDC의 관련항목의 전개를 따르도록 한다. 그 이유는 이에 관련된 DDC의 전개항목이 너무 적어 한국의 도서관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재전개안에서는 도서관에 따라 불교와 동양종교, 한국종교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류기호를 변경할 수도 있도록 하는 별법(別法)도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는 220에는 불교, 230에는 동양유래종교, 231에는 천도교 및 한국유래종교, 232에는 도교 및 중국유래종교, 240에는 기독교를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도서관의 현장에서 DDC를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큰 문제의 하나인 종교류의 재전개 문제를 이론적인 면에서 검토하여 개선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 안이 기존의 안들과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DDC의 원안에서 7개의 강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를 단 하나의 강으로 축소시킨 점이다.

DDC에 관한 연구가 주로 서양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종교류의 개선안이나 임의규정도 다분히 기독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시각은 하나의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다수의 종교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균형감각은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차후의 DDC 종교류 임의규정의 개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가 한국은 물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여러 나라의 도서관에서 종교류의 분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승환. “DDC 19판 사용에 따른 한국 및 동양관계 주제전개 연구.” 《논문집》(강남대) 제16권(1986). pp. 599-621.
- 김연경 편역. 『제21판 Dewey 십진분류법: 동양관계세분법』. 서울: 금문서적, 1997.
- 남태우. “DDC21판의 개정내용과 그 특성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1996). pp. 85-104.

- 변우열. "종교류 문헌분류 전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오동근. "DDC의 새로운 이해(I)." 《도서관문화》 제39권, 제1호(1998.1·2). pp. 54-74.
- . "DDC의 새로운 이해(II): 일반적 성격과 구조." 《도서관문화》 제39권, 제2호(1998.3·4). pp. 46-59.
- . "DDC의 새로운 이해(III): 분류작업의 실제." 《도서관문화》 제39권, 제3호(1998.5·6). pp. 35-47.
- 오동근, 여지숙.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 임의규정의 적용방안." 《도서관학논집》 제29집(1998). pp.313-342.
- 이세원. "DDC에 있어서 동양관계항목의 발전 및 고쳐쓰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재철.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상): 그 역사와 전개 및 고쳐쓰기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4권, 제7호(1967. 7). pp.5-14.
- .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중): 그 역사와 전개 및 고쳐쓰기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4권, 제8호(1967. 8), pp.18-28.
- .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하): 그 역사와 전개 및 고쳐쓰기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4권 제9호(1967. 9) pp.24-29.
- 최윤숙. "우리나라 도서관의 DDC 동양부문 전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공저. 『문헌분류의 이론과 실제』.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 Bloomsberg, Marty & Hans Weber. *An Introduction to classification and number building in Dewey*.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1976.
- Chan, Lois Mai & Joan S. Mitchell e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Edition 21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Forest Press, 1997.
- Chan, Lois Mai, et. 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A practical guide*. 2nd ed. New York, Forest Press, 1996. p.
- Dewey,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7th ed. 2vols. (rev.) N.Y., Forest Press, 1965.
-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8th ed. 3vols. N.Y., Forest Press, 1971.
-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4vols. N.Y., Forest Press, 1989.
-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th ed. 4vols. N.Y., Forest Press,

1996.

Mitchell, Joan S. "Options in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the current perspectiv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19, No. 3/4(1995). pp. 89-103.

Osborn, Jean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19th ed: a study manual*.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92.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0th ed: a study manual, rev. ed.*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1991.

Satija, M. P. and J. P. Comaromi. *Introduction to the practice of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New York, Envoy Press, 1987.